



2008년 무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한국고분자학회 회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고분자산업계가 금년에도 큰 발전을 이루기를 기원합니다.

새로이 도입된 회장 선출 제도에 따라 첫 번째 산업계 출신 회장의 직책을 맡게 되어 큰 영예와 함께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학회의 변화를 바라는 회원 여러분의 기대에 부합할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열성을 다하고자 합니다.

한국고분자학회는 지난 30여년 간 전임회장님들의 희생적 노력과 산업계의 적극적인 후원을 바탕으로 눈부신 발전을 하여 세계গুল지의 고분자학회로 성장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고분자산업의 경제규모는 35조에 달해 세계 5위로 성장하였고 학회 역시 이에 버금가는 국제적 위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 고분자 산업의 사업 구조는 범용위주의 매우 취약한 개도국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범용의 저부가 제품은 56%를 수출에 의존

하는 반면 고기술을 요하는 기능성 수지는 상당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또한 최근의 환경변화는 기업활동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유해환경물질 및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국제규제 강화, 세계화학산업의 대대적 구조개편과 막대한 시장을 무기로 하는 중국과의 기술격차 감소, 날로 두터워지는 유럽연합의 눈에 보이지 않는 시장/기술장벽, 자원고갈로 인한 원부자재가격 폭등 및 자원무기화 등이 그것입니다. 급변하는 기업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미래 기술혁신을 위해서는 학회의 역할이 중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기술혁신을 위한 산학연협력이 절실하고 고급두뇌를 고분자 산업으로 적극 유치하기 위한 산학연의 유기적 협력강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산업계 회장으로서 제가 해야 할 일은 산업계와 학연간의 협력을 활성화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 동안 학회활동은 춘추총회를 통하여 연간 2,200여 편의 논문이 발표되었고 회원수도 4,000명 가까이 지속 증가하는 등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고분자 토론회”, “고분자 아카데미”, “고분자 신기술강좌”, “고분자 기기분석” 등은 초기대비 매년 산업계 참가자들이 정제 혹은 감소하는 경향이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지난 추계총회에서 개최한 산학연 심포지움은 산업계로부터 매우 긍정적인 호응을 받았기에 이를 더욱 활성화 하려고 합니다. 특히 산학연 정보교류의 장인 “고분자 토론회”는 고분자 Forum의 성격으로 산업계와 학연의 회원들께서 동시에 흥미를 느낄 수 있는 topic들로 확대 개편하여 고분자 high-society 모임으로 승화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학회학술지인 “Macromolecular Research”, “폴리머” 그리고 “고분자 과학과 기술”지에 산업계의 논문 발표를 적극 권장하고 학회에서의 산업계 발표 기회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각종 학회 회의도 학교와 출연연구소, 기업연구소 등에서 순회개최하여 산학연의 관계를 한층 긴밀하게 할 계획입니다. 산업계 회원 배가운동을 전개하고 기업의 특별회원제도를 활성화 하며 화학관련학회,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Plastic 협동조합 등 고분자관련 학협회와도 교류의 폭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산업계의 화두는 “창조적 차별화”입니다. 버틀란트 러셀은 인간의 두 가지 충동에 대하여 설파하였습니다. 예술가나 과학자의 활동 같은 창조충동과 끝없이 돈을 모으는 경제인들의 소유충동이 그것이며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창조충동을 계발하고 강화하는데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대의 기업활동은 인간의 두 가지 충동을 모두 계발하여야 성공합니다. 창조를 기반으로 한 기업만이 경쟁력이 있고 지속 성장이 가능한 시대입니다. 창조는 새로운 삶을 여는 열쇠이며 기업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열쇠입니다. 학계의 창조적 활동을 기업에서 꽃 피우게 하여 모두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場을 만들어 주는 역할이 학회가 해야 할 중요한 일 중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인은 인하대의 윤진산 수석부회장을 비롯 SSCP의 구정기 부회장, SK에너지의 박상훈 부회장, 송실대 이상원 부회장, 포항공대 장태현 부회장, 한국화학연구원 이규호 부회장님과 임원진 여러분, 학회운영 전반을 담당할 서울대 장지영 전무이사 및 여러 운영이사들과 같이 합심 협력하여 한국고분자학회를 산학연간 정보 유통의 마당이 되도록 하고 기업 창조 경영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데 앞장 설 것입니다. 아울러 회원 여러분께도 우리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기탄없는 조언과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드리며, 특히 산업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학회 30년의 역사를 방대한 자료집으로 발간하였고 학회업무를 원만하게 수행하신 전임 안광덕 회장님과 김철희 전무이사님, 학회일에 헌신적으로 봉사하신 운영이사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 회원 여러분의 소망성취와 고분자 산업계의 무궁한 발전을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2008년 1월 1일

신임회장 우 상 선